

# 한국내 외국인 이주 및 체류자집단 인종문제의 폭동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05.10.27 프랑스 인종폭동 사태 중심으로

최기남\* · 이선재\*\*

## <목 차>

- I. 서 론
- II.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초
- III. 한국내 외국인 이주 및 체류자집단의 인종문제 분석
- IV. 프랑스 폭동사태의 사례분석
- V. 한국내 외국인 이주 및 체류자집단의 폭동잠재성과 프랑스폭동의  
주요 요인별 비교분석
- VI. 결론 및 제언

## <요 약>

한국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체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다문화 가정2세를 양육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하여 다국적 집단시설에 모이면서 결속되고 세력화되어 새로운 사회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프랑스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상대적 소외감이 내적된 이민자들의 불만이 방화·폭력현상으로 표출되는 폭동사태가 발생하였다. 직접경험을 해보고 아는 것보다, 다른 곳의 현상을 보고 미리 자신의 경험으로 습득하는 반면교사(反面教師)의 지혜로서 프랑스 폭동사태에 관한 원인을 탐색하여 보고, 한국내 이주 및 체류자집단의 인종문제가 폭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주제어: 프랑스 소요사태, 테러리즘, 폭동, 집단 폭력, 방화 】

\* 대통령경호실, 경호안전학박사 (제1저자)

\*\*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과 석사과정 (제1공동저자)

## I. 서론

2005년 10월 27일 프랑스 클리시-수-부아 지역에서 경찰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10대 소년 2명이 변압기에 닿아 감전사했는데, 시위대는 경찰의 추적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이라며 폭력소요사태를 일으켰다(SBS TV, 2005.11.1. ; 경향신문, 2005.11.4). 이 폭력·방화사태는 대부분 북아프리카와 아랍국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 2세로서 주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모슬렘에 의해 발생하였다(경향신문, 2005.11.7).

프랑스는 톨레랑스(tolerance)로 대변되는 관용주의와 복지제도를 표방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도 경기침체, 이민자정책의 한계, 사회적 동화 실패 및 인종갈등과 같은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방화 및 폭동으로 표출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매일경제, 2005.11.8; 연합뉴스, 2005.11.11; 머니투데이, 2005.11.9). 이러한 사태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한국 역시 인력수급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대전일보, 2005.8.7).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인 체류자를 증가시켰다. 농촌 또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2세대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내일신문, 2005.11.17). 현재 한국의 이주 및 체류자의 인종문제가 표면화되어 가고 있다. 필자는 프랑스와 같이 한국 내에서도 이들의 인종문제가 폭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 폭력소요사태의 복합적 원인이 한국에서도 심화되면, 외국인2세 문제는 이들이 성장하여 청년층에 들게 되는 시점에 한국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프랑스 폭력소요사태의 원인을 탐색하여 보고 유사한 한국 사회현상을 찾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한국 내·외에서 발간된 관련 단행본 및 연구논문을 활용한 문헌조사방법을 하였다. 둘째, 연구보고서, 법령집, 국정감사자료, 신문, 인터넷 검색의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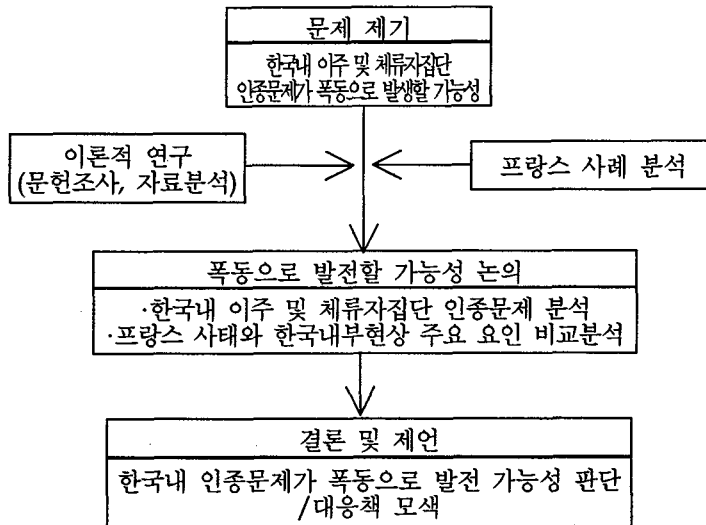
본 연구의 범위는 2005년 10월 27일 발생한 프랑스 폭력소요사태의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하였

- 
- 1) ① 인종문제(人種問題, race problem)란 인종적 편견에 의하여 빚어지는 인종집단간의 갈등이다. 인종이란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는 생물학상의 특징(혈액형·피부색·모발 등)으로 인류(homo sapiens)를 구분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한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인종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사회문제,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정신구조의 모든 분야에서 야기되는 혼란이나 분쟁을 인종문제라고 한다. 그 전형은 유색인(有色人)과 백인(白人)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대인은 인종에 따른 구분은 아니나 그들을 둘러싼 사회문제도 인종문제로 불린다. 또 니그로이드(Negroid:흑인)나 몽골로이드(Mongoloid:황색인)는 일괄하여 유색인으로 분류되나 유색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도 인종문제로 다루어진다. 예컨대 수단에서의 흑인 대 아랍·아프리카인, 가이아나에서의 흑인 대 인디오,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서의 화교(華僑) 대 말레이시아인의 대립·항쟁이 그것이다. 때로는 민족문제나 부족문제가 인종문제로 잘못 불리는 경우도 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5).
- ② ①에서 설명되어 지는 것과 같이, 인종문제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정신 구조의 모든 분야에서 야기되는 갈등으로서 본 논문에서 논의 되는 이민자들의 인종문제란 ‘이민자 집단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정신구조의 모든 문제’이다.

다. 프랑스 소요 사태는 최초 클사시-수-부아 지역에서 발생한 후 프랑스 파리 주변 빈민지역으로 확산되었다(경향신문, 2005.11.4).

직접 경험하기전 간접경험으로 위험을 겪지 않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다른 사실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지혜로서 프랑스 폭력소요사태 발생원인을 탐색하고, 한국내 프랑스 소요사태 발생원인과 유사한 현실을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논문의 전개과정



## II.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초

### 1. 이주자 및 체류자의 개념 및 범위

이민(移民)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항구적 또는 장기에 걸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 영토에 이주(移住)하는 일 또는 이주하는 사람(두산 세계 대백과사전, 2005)'이다. 프랑스는 이민을 법적으로 받았던 국가로서 이민자와 이들의 자녀인 이민2세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공식적으로 이민을 받지 않고 있다(조선일보, 2005.11.9). 하지만 한국내에는 이주하거나 체류중인 외국인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주(移住)란 '다른 곳이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삶(동아 새국어사전, 2005)'이고 체류(滯留)란

‘(딴곳에가서) 오래머물러 있음(동아 새국어사전, 2005)’으로서 한국내 이주자와 체류자는 프랑스의 이민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이민2세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2세 또는 이주2세와 유사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sup>2)</sup>란 ‘일정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의 사전적 의미와 출입국관리법<sup>3)</sup>과 근로기준법<sup>4)</sup>에서 정의하는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대상과 범위의 외국인 이주자 및 체류자집단의 범위는 한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및 그 2세로 한정하였다.

## 2. 소요 및 폭동의 개념과 범위

소요(騷擾)와 폭동(暴動)은 그 의미가 유사한점이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언론에 따라 ‘프랑스 소요사태’, ‘파리 이민자 폭동’으로 각각 표기 하고 있다<sup>5)</sup>. 외국 언론은 어떠한 어휘로 기사를 작성하였는지는 다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Tide of Rioting Ebbs a Bit

France's new state-of-emergency went into effect Tuesday and by Wednesday authorities say car burnings fell by nearly a half(New Times(2005. November 10), A.P Video) .

仏暴動 中東では賛否兩論

« 「差別耐えきれず我慢に限界」 / 「文化固執アラブ系に閉鎖性」 »(産経新聞, 2005.11.17)

仏暴動、10都市以上に擴大(東京新聞, 2005.11.16)

New York Times는 프랑스 사태관련 보도를 ‘The Franch riots(New York Times , November 7. 2005. Multimedia)’, ‘Tide of Rioting Ebbs a Bit(New Times(2005. November 10), A.P Video) 로 표기하였다. 그 외 Washington Post는 ‘Riots in Frence’, CNN special reports는 ‘RIOTS IN FRENCE’<sup>6)</sup>로 기술하였으며, 산케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등 일본 신문에서는 “仏暴動”이라 하였다.

- 2)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 초빙노동자(guest worker), 계약노동자(contract worker), 단기노동자(temporary worker), 이방인노동자(alient worker) 등 다양한 명칭이 있으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로 표기하였다.
- 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2항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4)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 5) 한국 언론 매체중 naver 뉴스, 경향신문, 한겨레21, 조선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국민일보, MBC, KBS, YTN 등 다수는 소요 사태로 기사화 하였고, 야후 미디어 포커스는 이민자 폭동으로 제목을 기재하였다.
- 6) <http://edition.cnn.com/SPECIALS/2005/france.riots/>

한국 언론 매체와 외국 언론 매체에서 기술하는 표현이 상이함으로 사전적 의미를 비교하였다. 소요(騷擾)와 폭동(暴動)에 관하여 국어, 한자, 영어, 법률 사전적 의미는 <표 2-1>과 같다.

<표 2-1> 소요와 폭동의 사전적 의미

구 분	소 요	폭 동
국어사전	악자하고 떠들썩함. 술렁거리고 소란스러움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소란을 피우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어떤 집단이 폭력으로 소동을 일으켜서 사회의 안녕을 어지럽히는 일
한자사전	騷(떠들 소) / 擾(호려질 요) ① 여러 사람이 떠들썩 하게 일어남 ② 못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폭행(暴行), 협박(脅迫)을 함으로써 한 지방(地方)의 공공(公共)질서(秩序)를 문란(紊亂)하게 하는 행위(行爲)	暴(나타낼 폭, 사나울 포) / 動(움직일 동) 도당(徒黨)을 짜서 소동을 일으켜, 사회(社會)의 안녕(安寧)을 어지럽히는 일
영어사전	commotion, disorder : 동요(agitation);소요, 소동(riot),(정치·사회학적) 폭동	riot : 폭동, 소요, 소동
형 법	소요죄(騷擾罪) <sup>7)</sup>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하는 죄	①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 <sup>8)</sup> ② 다수인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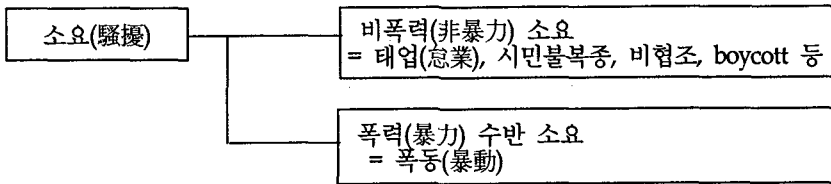
\*자료: 동아새국어사전(2005), 동아프라임영어사전(2005), <http://www.e-hanja.co.kr/>, 도해 법률용어사전(오세경 외,2005) 재구성

사전별 의미를 비교하여 보면, 소요(騷擾)란 ‘악자하고 떠들썩함. 또는 술렁거리고 소란스러움,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소란을 피우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동아 새국어 사전, 2005). 폭동(暴動)은 ‘어떤 집단이 폭력으로 소동을 일으켜서 사회의 안녕을 어지럽히는 일(동아 새국어사전, 2005)’, ‘조직되지 않은 인간집단(폭도)이 자연발생적으로 폭력에 의해 소동을 일으키는 일(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2005)’이다. 즉 소요는 술렁거리고 떠들썩한 상태이고, 폭동은 폭력을 동반한 움직임이다. 즉 <표 1>와 같이 소요와 폭동은 유사한 의미도 있지만 <그림 2>과 같이

- 7) 소요죄는 국헌문란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내란죄와 다르다. 다중이란 몇 사람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데 상당한 다수의 인원을 말한다. 집합이란 내란죄와 같이 조직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집합의 목적도 불문한다. 집합한 다중이 특정한 공동목표를 갖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폭행, 협박은 가장 넓은 의미의 것을 말한다. 즉 폭행은 사람에 대한 것이든 사물에 대한 것이든 모두 포함한다.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폭행, 협박이 이루어짐으로써 족하느냐, 그 폭행, 협박은 구체적으로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데 족할 정도임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판례는 후설을 취한다(오세경 외(2005), 도해 법률용어 사전:884-885).
- 8) 형법에는 폭동죄란 항목은 없다. 그러나 내란죄의 해설에 폭동에 대한 정의가 있다. 법률용어사전(오세경 외,2005)에 의하면,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을 의미하며, 폭행·협박은 최광의의 그것이다. 따라서 폭행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한다. 다만, 폭행·협박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일 것이라 하였다.

폭력의 유무(有無)로 구분할 수 있다. 소요(騷擾)는 비폭력 시위<sup>9)</sup>로 인한 소요와 폭력이 동반된 소요로 나눌수 있으므로, 소요(騷擾)는 폭동(暴動)보다 더 큰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소요와 폭동의 범위도



그러므로, 방화와 기물파괴와 같은 폭력을 수반한 행위로 표출된 2005년 10월 27일 발생한 프랑스사태는 ‘프랑스 소요’사태보다 ‘프랑스 폭동’사태로 보는 것이 더욱 구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내 다수 언론은 ‘프랑스 소요사태’로 기사화 하였으나 본 논문은 프랑스 이민2세들에 의해 방화라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표출된 사건을 통해, 그 발단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내부에 이와 유사한 원인이 내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임으로 프랑스 폭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3. 폭동의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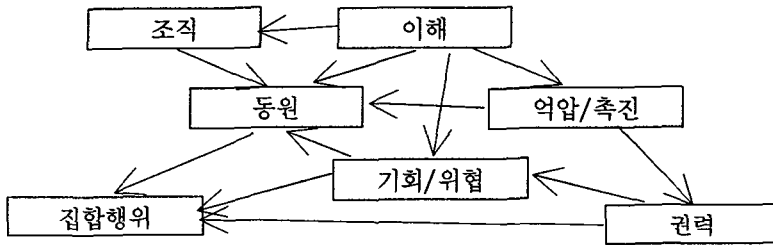
Charles Tilly의 동원모델은 군중의 동원에서 혁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동원(mobilization)단계 모델로써 폭동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폭동(暴動)은 집단으로 폭력을 수반하는 특성이 있다.<sup>10)</sup> 즉 폭동은 그 특성상 집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행위(集合行爲)<sup>11)</sup>가 발생한다. 집합행위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Charles Tilly는 그의 저서 「동원에서 혁명으로」에서 집단내 또는 단일 집단들 사이의 집합행위에 대한 상호행위 모델로서 ‘동원 모델(mobilization model)’을 제시하였다(Charles Tilly, 1995:101). 동원 모델은 이해, 조직, 동원, 집합행위, 기회/위협, 권력, 억압으로 구성되어있다(<그림 2-2> 참조).

9) 비폭력 표출 수단으로, 태업(怠業, sabotage), 시민불복종, 비협조, boycott등이 있다.

10) 폭동의 의미에는 ‘집단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의미가 포함된다.(동아 새국어사전, 2005; 도해 법률용어사전,2005)

11) 집합행위는 공통 목적을 추구하는 공동행위라고 할 수 있다(Charles Tilly,1995:9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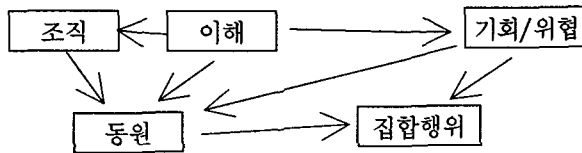
<그림 2-2> 찰스 톨리의 동원 모델(mobilization model)



\*출처: Charles Tilly(1995), 동원에서 혁명으로 :101

Charles Tilly의 동원 모델에서 구성요건인 이해, 조직, 동원과 기회/위협 요소는 집합행위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집합행위의 진행단계



\*출처 :Charles Tilly(1995), 동원에서 혁명으로 :101, 참조로 필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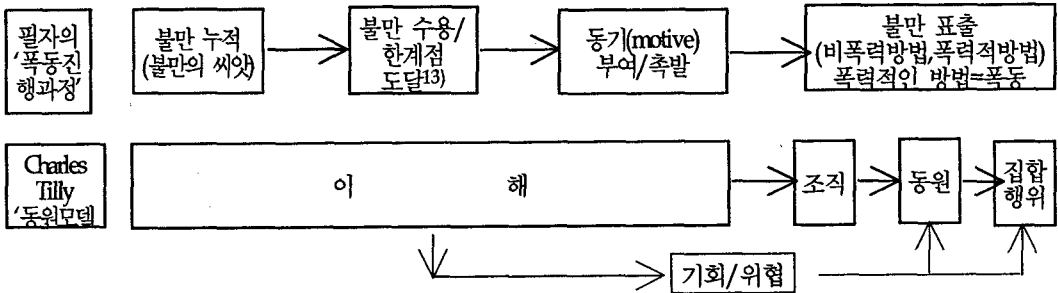
이해(interests)는 다른 주민들과의 다양한 상호행위로 인해 자기 집단에 발생하게 되는 모든 이익과 불이익을 의미한다(Charles Tilly, 1995:98). 필자는 어떠한 불만이 누적되어 수용되어지는 과정에서 이익과 불만족의 전환점이 초과되는 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

조직(organization)과 동원(mobilization)은 집합행위의 전 단계이다. 공통된 일체성의 조직단계를 거쳐 자원의 증대나 집합적 통제 수준 증대를 통하여 공통목적을 추구하는 연합적 행위인 집합행위로 진행되는 것이다(Charles Tilly, 1995:98-99).

필자는 프랑스에서 방화와 폭력행위로 불만을 표출한 폭동사태<sup>12)</sup>에 관하여 불만이 누적되어지는 현상을 검토하고 한국에는 폭동발생요인이 진행되어가는 현상의 유·무를 검토하고자 <그림 2-3> 집합행위의 진행단계 모델을 기초로, 이해·조직·동원·집합행위의 단계를 <그림 2-4>와 같이 폭동의 진행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 폭동의 진행과정 모형은 찰스 톨리의 동원 모델의 이해단계의 과정을 불만이 누적되고, 일부불만을 수용하다가 그 한계점에 도달되어 누적되고 있을 때 동기(motive)가 부여 되어 불만이 표출되어진다고 재구성하였다. 이때 불만의 표출은 집단 또는 단일집단들 사이의 내·외적갈등의 해소를 비폭력적 방법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12) 사태(事態)란 '일이 되어 가는 형태나 상태(동아 새국어 사전)'로서 폭동사태(騷擾事態)란 어떤 집단이 폭력적으로 소동을 일으켜서 사회의 안녕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어 가는 형태나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림 2-4> 폭동의 진행과정 모형



\*자료 : Charles Tilly(1995), 동원에서 혁명으로 :101, 참조로 필자 재구성

### Ⅲ. 한국내 외국인 이주 및 체류자집단의 인종문제 분석

한국내 이주 및 체류자집단들의 인종문제가 폭동으로 발전 가능할 경제적요인과 사회정책적요인을 검토하였다.

#### 1. 경제적인 요인

##### 1) 노동 시장의 불안전성

한국은 심한 실업난과 고용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10월 전체 실업률은 전년 동기 0.2% 오른 3.6%였고 청년실업률은 7.2%로 전년 동기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30대, 40대, 50대는 각각 0.5%포인트, 0.6%포인트, 0.3%포인트 올랐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5.9%가 늘어난 14만명으로 조사됐다(헤럴드 경제, 2005.11.23).

그러나, 청장년층의 실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2005년도 상반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업체 679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인력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인력부족률은 고졸인력(5.5%)이 대졸인력(4.1%)보다 높게 나타나 산업체와 대학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못지않게 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을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서울경제, 2005.8.1).

이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 업체들은 산업기능요원 활용'(54.9%), 외국인 연수생 활용(45.1%) 등 직접적인 인력공급 방식을 선호했으며 인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시설 자동

13) 집단이 받게 되는 이익과 불만족의 전환점을 필자는 불만표출의 한계점으로 재구성하였다.



화'(35.6%), 외주가공'(30.3%) 등을 통해 인력난을 최소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3D업종<sup>14)</sup>이라 불리는 이 업체에는 40대 후반의 직원과 외국인 근로자만이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뿐 젊은 직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대전일보, 2005.8.7). 그러나 청년실업률(15~29세)은 7.2%로 전체 실업률(3.6%)의 배가 된다. 일자리(수요)와 교육(공급)의 연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청년실업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국민일보, 2005.11.21).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학력과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해당 직업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과잉 근로자 비율이 1996년 18.9%에서 2002년 29.1%로 무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2005년도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구직자의 68.5%가 연봉이나 학력기준 등에서 눈높이를 낮춰 '하향취업'을 선택하겠다고 한다. 하향취업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의 실업상태를 우선 모면하여 향후를 도모 하겠다'는 한계적 판단이 팽배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직무 만족도나 성취동기가 높을 리 없다. 적재적소의 효율성이 어긋나고, 이는 곧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국민일보, 2005.11.21).

청년실업률의 증가, 학력과잉 및 하향취업 추세, 중소기업체제의 인력부족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속에서 3D업종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으로 일하는 전근대적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프랑스 폭동의 원인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이 제시되었다(매일경제, 2005.11.10). 한국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은 장차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될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2. 사회정책적 요인

### 1) 외국인 노동자·체류자 증가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민자를 '자기 출생지 밖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는 UN의 '이민자'개념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사실상의 이민자 즉 외국인 이주 및 체류자 수는 50만명에 육박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10만여명(법무부 추정)까지 포함하면 외국인은 60만명에 가깝다(조선일보, 2005.11.9). 지난 2005년 8월 31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체류자는 332,653명이다. 이중 합법 체류자는 142,919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중 43%를 차지한다. 불법 체류자는 189,724명으로서 전체 외국인 체류자중 57%로 합법 체류자 보다 15% 많다(<표 3-1> 참조). 외국인 노동자는 중소 제조업과 건설업, 연근해어업, 가사·간병·청소업 등 취업이 허용돼 있는 5개 업종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이 싼 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일부 영세업자들과, 3년이 넘으면 일단 나가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려는 외국인들의 이해가 동일하여 불법체류자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YTN TV, 2005.10.20).

14)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스러운(dangerous) 산업.(두산세계대백과 사전, 2005)

<표 3-1> 외국인 인력 체류 현황

(단위 : 명, %)

전 체	합 법 체 류 자						불 법 체류자
	소 계	취업사증 소지 근로자			산 업 연수생	해외 투자 기업연수생	
		비전문 취업자	전 문 기술인력	연 수 취업자			
332,653 (100.0)	142,919 (43.0)	31,352 (9.4)	22,718 (6.8)	48,994 (14.7)	33,185 (9.9)	6,680 (2.0)	189,724 (57.0)

\*불법체류자수에는 비경제활동인구(15세이하 및 61세이상) 미포함(21,638명)

\*출처 : 법무부 제공(2005.8.31)

## 2) 한국 출산률 감소

한국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주 출산연령층인 25~29세 여성인구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25~29세 여성들 중 배우자가 있는 비율도 줄어들고 있어 당분간 출생아 감소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출생아수는 47만6000명으로 1970년의 절반수준이며, 지난 2000년의 63만7000명과 비교해도 4년만에 33.8%나 감소했다. 한국 출산율(여자 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은 지난해 기준으로 1.16명으로 일본 1.29명, 영국 1.79명, 2003년 기준으로 미국 2.04명, 프랑스 1.89명, 독일1.34명, 이탈리아 1.29명보다 훨씬 낮고 감소속도도 매우 빠르다. 한국 출산율은 1977년까지 3명이상이었고 1983년까지만 해도 2명이상이었다. 1990년에 1.59명으로 낮아졌고 2000년에는 1.47명, 지난해는 1.16명까지 떨어졌다(머니투데이, 2005.11.29).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는 47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되었고, 2003년의 49만 3천4백여 명보다 만 7천여 명이 줄어든 수치이다(YTN TV, 2005.8.24).

프랑스는 산업혁명이후 노동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출산율은 감소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3D산업에 종사할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 나게 되었다(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2005:172-173). 프랑스 폭동은 이들에 대한 현상이었다. 한국 역시 출산율은 감소되고, 3D업종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증가되는 추세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공단과 농촌 지역에 밀집하게 되어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sup>15)</sup>

## 3) 외국인범죄증가에 따른 반외국인감정의 확산

2005년도 경찰청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 4,328건에서 2005년 9,042건으로 증가되고 있다(<표 3-2> 참조). 대검 관계자는 "조선족 입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중국

15)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단지 내에서 숙식을 하며 거주하고,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증가로 이 두 지역에 외국인거주자들이 밀집되고 있다. 이 지역과 대도시의 내국인집단과는 프랑스에서의 대도시와 방리유와 비슷한 상황이라 하겠다.

인 범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 외국이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하였다(한겨레, 2005.5.2).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설 곳을 잃은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죄도 증가되고 있다(노컷뉴스, 2005.11.10). 외국인 범죄 증가는 반외국인 감정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

<표 3-2> 2005년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약류	교통 등
2001	4,328	40	113	34	590	1,380	589	44	82	1,456
2002	5,221	47	100	41	599	1,865	568	29	99	1,873
2003	6,144	32	137	49	630	2,071	834	49	120	2,222
2004	9,103	60	157	52	825	2,424	1,965	40	218	3,362
2005	9,042	42	124	62	821	1,919	3,340	32	152	2,550

\*출처 :경찰청(<http://www.police.go.kr/frame.jsp>)

#### 4) 코시안(Kosian)의 증가

국제결혼은 90년 4710건에 불과했지만 95년 1만3494건으로 늘어났으며 2003년 2만5658건, 2004년 3만5447건 등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한국 전체 결혼의 11.4%가 국제결혼이었다. 10년 뒤에는 국제결혼 가정만 100만쌍이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다 국제 결혼한 20만쌍이 1~2명의 자녀를 가지는 경우 현 단계에서만 코시안(kosian)<sup>16)</sup>의 수는 20~40만명, 10년 뒤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내일신문, 2005.11.17).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한국 국제결혼 가운데 농촌지역의 혼인이 27.4%를 차지한다고 한다(파이낸셜뉴스, 2005.11.23). 또한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초중고에서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2세(혼혈인)는 도시지역 3469명, 농촌지역 2593명을 합쳐 모두 6052명이다. 9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결혼한 20만쌍 중 99년 이후에 결혼한 11만5000여쌍의 자녀들이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규학교를 입학하는 코시안의 수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코시안은 현 단계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10년쯤 후에는 공장 밀집지역이나 농촌 일부지역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4분의 1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내일신문, 2005.11.17)

#### 5) 반한감정의 표출 및 테러위협에 따른 갈등의 누적

불법체류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과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

16) 1997년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을 합성해 만들었다. 넓게는 일본인과 중국인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를 가리키지만, 좁게는 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5).

다. 이를 악용하여 임금체불, 폭행을 가하는 업체도 있어 불법체류자들은 반한감정(反韓感情)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세계일보, 2005.12.5). 법무부가 2004년 10월 3일 한나라당 김재경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불법 체류외국인의 반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공개 하였다(조선일보, 2004.10.3). 지금까지 정부당국이 파악한 불법체류자들의 반한활동은 반정부적 시위 및 집회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테러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반한활동이 처음으로 포착된 것은 2004년초 명동성당에서 열린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시위에서 자진출국 전면 거부, 정권타도, 이라크 파병반대 등의 구호가 등장하면서라고 한다. 그동안 불법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기는 했지만, '정권타도', '이라크 파병반대' 등과 같은 정치성 구호가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불법체류자들의 활동이 단순히 단속에 대한 항의 차원을 넘어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들의 배후에 일부 급진세력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조선일보, 2004.10.3). 불법체류자의 반한감정(反韓感情)을 보는 한국 여론은 강경·온건으로 나누어져 갈등양상에 있다. <표 3-3>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언론의 주요기사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표 3-3> 불법체류자의 반한감정에 대한 한국내 강경·온건 여론 기사

구 분	기 사 내 용
강경 여론	<p>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인 모두 43만7954명이다. 이 중 이슬람국가 출신은 29개국 6만706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5개국 출신이 1755명이다. 또 알 카에다 등 테러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의혹을 받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7177명이다. (중략)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계통 불법체류자 중에도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들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반한활동이 알 카에다와의 테러활동과 연계될 가능성까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일보, 2004.10.3)</p> <p>문제는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다. 지난해 말 현재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5개국 출신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1755명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이 1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동향 파악과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 민간인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서울신문, 2004, 10.4).</p>
온건 여론	<p>외국인이주노동자협회의회는 "테러라는 사회적 위기를 근거로 외국인에 대한 불심 검문 등 분명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우려의 소리를 냈다. 외노협 측은 "최근 이주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마저 반한활동의 범위에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불만을 '중오감'으로, 그들의 투쟁을 '반한활동'으로 몰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반발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중략)언론은 근거 없는 추정을 기사화하기 이전에, 이러한 보도가 이주노동자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의 3D업종에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해오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출신 국가를 이유로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며 감시하고, 불심 검문을 하고, 근거도 없이 연행하고, 공포와 의심의 눈총을 보내는 것은 테러에 대한 예방책이 아니라 인권침해일 뿐이다(일다, 2004.10.11.)</p>

\*자료 : 조선일보(2004), 10.3; 서울신문(2004), 10.4; 일다(2004), 10.11참조로 필자 재구성

## 6) 타민족배척문화의 형성

민족을 식별하는 가장 큰 지표는 언어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 남아 있는 언어는 6,800종이라고 한다. 언어의 차이는 차별을 낳기 쉽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할 때 증오는 분쟁으로 발전한다(세계 정세를 읽는 모임, 2005:63). 국가간에는 분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국내적으로는 증오하는 집단끼리 폭력을 사용하여 상호 공격하기도 한다.

2005년 2월 러시아 제2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 유학생 3명이 스킨헤드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살이 드러날 정도로 머리를 째깍 깎고, 검은 가죽점퍼를 입고 군화를 신은 청년들은 찢어진 눈을 가진 늑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며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러시아 인만을 위한 러시아를 외치는 스킨헤드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문화일보, 2005.7.9).

블라디보스토크지에 의하면 최근 스킨헤드에 의해서 발생한 강력한 폭력 범죄로는 2002년 모스크바에서 53살 아베라바이잔 살인사건, 2003년 9월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집시여인 살인사건, 2004년 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9살 타지키스탄인 살인사건 등이 있다. 이들은 사회를 파괴하는 인류의 쓰레기인 유대인, 이민자, 마약중독자, 호모, 공산주의자를 주적으로 삼고 이들로부터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이들의 신체적 종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하며 민족적 증오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다(연합뉴스, 2005.5.19).

독일인 경우 스킨헤드(skin head)들이 외국인 이민자의 집을 방화 하고 외국인 이민자를 기차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프레시안, 2005.11.8). 독일에는 우파정당이 세개 있다. 대표 적 극우정당인 민족민주당(NPD)의 당수 우도 포익트는 외국인이 독일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란 이유로 외국인을 적대시 한다고 하였다(중앙일보, 2005.5.13). 이들은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로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폭력으로서 그들의 증오와 의지를 표출한다. 현재 한국에는 스킨 헤드와 KKK단과 같은 인종차별주의적 폭력단체는 언론상에 보도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내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내국인의 반감은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다<sup>17)</sup>.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체류외국인 범죄 증가 및 반한감정의 외국인 인권문제와 이들의 요구가 많아져 내국인의 피해의식이 그 한도를 넘어 섰을 때 한국의 인종차별 극우폭력집단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 인종차별주의 또는 왜곡된 민족주의로 인한 내국인과 갈등은 상대 집단에 대한 증오는 폭력으로 전이(轉移)되어 폭력적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17) ① 외국인노동자대책 시민연대(<http://www.njustice.org/>)의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점' 설문조사에서 2005년 12월 19일까지 결과는 총 181명 투표자중 ▲내국인 고용기회 침탈 59명(32%)▲근로여건악화 29명(16%)▲각종 범죄문제 87명(48%)▲국민 보건문제 6명(3%)로 범죄 문제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② internet portal site daum의 cafe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개설된 cafe를 검색해 본 결과 총 114건이 개설되어 있었고 이중 2건은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강한 반외국인 감정을 내포하고 있었다(2005.12.19).

## IV. 프랑스 폭동사태의 사례분석

### 1. 프랑스 역사의 포괄적 검토

2005년 10월 27일 프랑스에서 발생한 폭동의 방화·폭력행위 용의자들의 신분은 마그레브나 아프리카 본토 출신 이민자 자녀(이민2세)이다(오마이뉴스 2005.11.8; 중앙일보 2005.11.26). 방화·폭력행위를 한 이민 2세들에게 영향을 준 정책과 역사적 사건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폭동 전·후 이민자 정책과 폭동사태 진행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였다.

#### 1) 폭동 발생 이전 이민자 정책의 역사적 배경

##### (1) 이민 역사와 이민정책의 변천

프랑스는 기원전 게르만족이 남하하면서 프랑스에 정착하였으며, 로마가 곁을 정복함에 따라 로마인들이 대거 프랑스에 유입되는 민족이동이 있었다.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는 기술이민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프랑스에 유입된다. 대혁명 이후 인권선언의 자유와 평등조항은 신교도와 유태인들에게도 평등한 대우를 하게되자 이들은 자유를 찾아 프랑스에 정치적으로 망명하였다(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2005:169-170). 프랑 혁명이후 혁명의 영향으로 공화국 관습(republican tradition)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의 입국과 이민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후 19세기 산업혁명이후에는 노동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출산율은 감소 추세를 보여 유럽과 프랑스식민지국가에서도 대규모이민을 받아들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인명 손실과 전후 복구의 필요성으로 외국인 유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민자들의 수용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입국과 이민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해왔다(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2005:170-173; 김용찬, 2001:51).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민자 집단을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2005:173). 20세기를 통하여, 이민에 관한 공화국의 정책은 국익의 이름 아래 외국인차별정책의 강화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이나 극우 정당과, 인권의 이름 아래 차별의 원화를 요구하는 혁신정당과의 대립하고 이 양대 세력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그 후의 역사를 개괄하면, 진보적 조직의 투쟁, 무역교류의 진전, 인권사상의 사회적 침투 등에 의해, 외국인차별은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완화되어갔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제럴드 노에리엘, 2002:131).

<표 4-1> 프랑스 이민의 역사와 이민정책의 변천

기간	기원전	중세후기	대혁명이후	19세기 산업혁명	1970년 이후	1980년대 이후	1990~현재
이민형태	민족이동	기술이민	정치적 망명	경제이민	정치망명 가족재결합	국경폐쇄	-
이민정책	수용/호의적	수용/호의적	수용/호의적	수용/호의적	규제강화	극단적배척/ 이민자통합정책	양대세력 대립 /갈등누적

\*출처 : 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2005:172-175; 제럴드 노에리엘, 2002:131 참조로 필자 요약

## 2) 폭동사태발생 후 진행과정

2005년 10월 27일 프랑스 파리 동북쪽 센-생-드니 지역에 속한 다른 소도시 클리시-수-부아에서 폭동이 시작되었다. 아프리카계 15세 소년 바누와 17세 소년 지아드가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려고 2.5m 높이의 송전소 담을 넘다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청년 수백 명이 '경찰의 과잉 행동이 감전사를 가져왔다'며 밤마다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과 맞섰다(조선일보, 2005.11.4) 그 이후 진행 과정은 <표 4-2>과 같다.

<표 4-2> 2005년 10월 프랑스폭동사태의 일자별 상황

일시	내용
2005.10.19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 교외 폭력 행위에 '가차없는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언.
10.27	클리시-수-부아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두 소년 부나 트라오레(15)와 지에드 베나(17)가 변전소 담을 넘다 감전사.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청년 수백명이 차량 23대를 불태우고 상점 등을 공격하면서 경찰과 투석전
10.28	클리시-수-부아에서 청년 수백명이 경찰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충돌. 경찰을 향해 사격이 있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음. 13명이 체포되고 차량 29대 소실.
10.29	주민 500명 침묵 시위. 야간에 폭력사태 재발돼 차량 20대에 방화.
10.30	경찰 최루탄이 이슬람 사원에 발사돼 무슬림 사회 분노 증폭
10.31	클리시-수-부아와 인근 교외 지역에서 청년들과 경찰 충돌. 차량 68대 방화로 불타고 19명 체포됨.
11.2	파리 교외 22개 소도시로 소요 확산 자크 시라크 대통령 진정 촉구, "존중 없는 행위로 위험한 상황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 빌팽 총리와 사르코지 내무장관 해외 방문 일정 취소. 파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22개 교외 소도시들로 소요 확산. 북쪽 교외 세브랑에서 청년들의 버스 공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56세 장애 여성 중화상. 차량 315대 불타고 15명 이상 체포됨.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실탄 4발 발사됐으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음.
11.3	경찰 '변전소 담 넘다 감전사한 부나 트라오레(15)와 지에드 베나(17)를 추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두 소년의 사망에 경찰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임시 수사 보고서 발표. 파리 교외에서 차량 520대 방화.

일시	내용
11.7	미셸 고딩 프랑스 경찰청장,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날 밤의 피해 상황을 발표하면서 사태가 전국의 300여개 도시로 확산발표 첫 사상자 발생, 4일 파리 북쪽 교외 스탕의 공공자주태가에서 이웃 사람과 소요 사태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자크-슈나텍(남,61세)는 두건을 쓴 청년에서 맞아 넘어져 혼수 상태에 빠지고, 7일 사망
11.8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비상사태법 발효에 앞서 8일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반차별기구 설치 등 이민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하고, 프랑스 사회의 통합을 호소했다
11.9	비상사태법 발동 : -북부 도시 아미앵, 중부 오를레앙, 파리 근교 사비니 슈르 오르주 통금령이 발동.
11.15	비상사태법 3개월 연장안 발표
11.17	사태 종료 선언. 동남부 리옹과 론 지역 통행금지령 해제

\*출처: 연합뉴스 2005. 11. 7; 한겨레 2005. 11.7; 오마이뉴스 2005. 11.8 참고로 재구성.

## 2. 프랑스폭동사태 발생원인의 분석

### 1) 경제적인 요인

#### (1) 높은 실업률과 경직된 노동시장의 근로형태

3주일 가량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이슬람·아프리카 이민 2세들의 방화 소요 사태는 프랑스 경제의 실패로도 일컬어진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못 만들어 저소득 이민자를 거리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 저소득 이민자가 많이 사는 지역의 실업률은 20%쯤 되고 이들이 몰려 사는 공공아파트 단지 중엔 무려 40%에 달하는 곳도 있다. 그래서 이번 프랑스 소요 사태를 인종이나 종교 갈등이라기보다 높은 실업률에서 온 기회 박탈과 소외감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프랑스 실업은 경기의 호·불황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고착됐다고 분석했다. 90년대 들어서도 불황에 실업률이 1997년 12%까지 치솟다가 호황일 때도 8.7%(2001년)까지 떨어졌을 뿐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특히 대량 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번에 소요 사태가 빚어진 저소득 이민자 거주지역도 영광의 30년 기간 중 프랑스에 이민 왔다가 무기력의 30년 때 일자리를 잃은 이민자들이 많이 산다. 프랑스는 2차대전이 끝나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위해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였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이들 상당수가 잉여 인력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주된 이유로 저(低)성장과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았다. 프랑스는 지난 70년대 중반 이후 2002년까지 노동자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한 몇 안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의 하나다(조선일보, 2005.11.24).

2005년 11월 9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프랑스의 근로모델이 화를 불렀다며 지적하였다. 프랑스 근로형태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실업률 및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이 있었다. 프랑스의 노동시



장은 철저하게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고 임금도 유연성을 갖기 힘들다(매일경제, 2005. 11.10).<sup>18)</sup> 경직된 노동시장은 일부 근로자에게는 평생직장을 보장해주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소외시키는 불평등한 이중구조를 낳았다. 높은 실업률이 한 증거고, 임시 고용(18개월 이내의 단기 고용)이 1985년의 5%에서 2002년 현재 14%로 늘었다는 것도 또다른 증거다. 말로는 평등과 노동자 권익을 지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시장을 갖게 됐다(조선일보, 2005.11.24). 또한 경직된 노동시장은 이들 소외계층을 차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소르본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북아프리카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프랑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구직인터뷰를 갖기가 5배나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사회가 이들 소외계층을 꺼안기를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다(매일경제, 2005.11.10). 높은 실업률과 경직된 노동시장은 폭동사태의 잠재적 '불만의 씨앗'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 (2) 이민2세대의 소외와 좌절

프랑스 이민자의 자식들인 제2세대에 대한 차별은 강화 되어 왔다. 이들은 1950년부터 70년대라고 하는 변영의 시대에 고용된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無産階級)의 아이들이기도 했다. 그들의 대부분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국적을 가지나 일반적으로는 노동자계급에 속하고 있었다. 때문에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의한 사회적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1950년대 이후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 위치하는 사회적 중간층(15세부터 25세 사이의 젊은이)이 출현, 대규모 집단주택과 도시화 우선지구가 증가 했다. 그 결과 제2세대가 사회에서 표면화되었다. 이들의 특징은 양친이 저항하는 힘도 없으면서 극도의 종속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며성장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매일과 같이 주변으로부터 소외된 것을 체험함에 따라 그들은 사회적인지를 강하게 요구하게 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기들을 경멸하고 있는 세계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일부에 의한 폭력적 행위는 그들이 그곳 사회에의 통합을 행하고 있어도 주어진 역할을 감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Noiriel, 2002:13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거 이주한 포르투갈인과 마그레브인들은 대도시 외곽의 빈민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주민의 주택관을 해소하면서 더 잘 통제하고 또 가속화하는 가족 합류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제5공화국에서는 영세민임대아파트(HLM) 건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어지는 동안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임시 주거 단지들을 마련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이 20년이 넘도록 이 주거 단지를 떠나는 행렬에 끼지 못했다. 이 아파트들은 빠른 속도로 노후

18) 프랑스 법무법인 알레리옹의 김중호 변호사는 "프랑스 노동법은 상당히 경직돼 있고 해고 절차 또한 까다로워 기업 입장에서는 임시로 직원 뽑는 것조차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근로자가 심각한 실수를 했거나 기업의 폐쇄를 막기 위해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전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해고된 근로자가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고용주가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조선일보, 2005.11.24)

되었으며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져갔다. 이렇게 실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같은 구역에 집중되면서 그들은 하층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과 좌절감에 빠져 들었다.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태어난 흔히 뵈르(Beur)라고 지칭되는 마그레브인 2세는 더욱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들은 집에서는 이슬람문화를 접하고 학교에서는 프랑스 문화를 접하면서 갈등을 겪어야 했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다른 아이들처럼 대부분 매우 높은 범죄율과 학업 실패율을 보여 주었다(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2005:180-181).

뉴욕타임스는 프랑스 이민 1세대의 경우 직업을 얻으면서 나름대로 프랑스 사회에 편입됐지만 2세대는 또래의 프랑스 친구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동아일보, 2005.11.9)

## 2) 사회정책적인 요인

### (1) 이민2세의 정체성 혼란

사람은 이성만으로 살지 않는다. 자아를 정의내리지 못하는 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행위 할 수 없다. 이익 추구는 자기 정체성을 전제로 한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는 시기에는 확립된 정체성이 무너지므로 자아가 새롭게 정의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발견되어야 한다. 정체성을 따지는 물음은 이익을 따지는 물음에 앞선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필요성을 느낀다. 종교는 이에 대한 강력한 답변을 제공하며 종교집단은 도시화로 상실된 공동체를 대신하는 작은 사회적울타리가 되어준다. 알 투라비(Hassan al-Turabi)가 말하듯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삶의 정체감과 방향성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역사적 정체성을 새로이 발견하거나 창조한다. 아무리 보편적 목표를 내건 종교라 해도 신도와 비신도, 우월한 내집단과 열등하고 이질적인 외집단의 기본적인 구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귀속감을 준다. 루이스(Bernard Lewis)는 이슬람 세계에는 위기의 순간에 이슬람 교도들이 종교적 공동체에서 근본적 정체성을 찾는다. 즉 인종이나 영토의 기준보다는 이슬람으로 정의되는 공동체에 헌신하려는 경향이 거듭 나타난다.”라고 주장한다(Huntington, 2004:127-128). 이민 2세대들은 프랑스사회에 동화해 왔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통합되지 못하자 본래의 문화 즉 부모 세대의 문화로 회귀 양상을 보였다(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2005:188). 이민 2세의 정체성 혼란은 부모 세대의 문화 회기로 나타나고 기존 국민의 문화를 배타적으로 인지하며 공격성을 잠재되어 폭력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2) 이민2세와 정책적 충돌

틀레랑스(tolerance)<sup>19)</sup>, 즉 관용(寬容)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상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2003년에

19) ① '관용'이나 '아량'으로 번역할 수 있는 틀레랑스(tolerance)는 나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음

들어서면서 톨레랑스 제로(tolerance zero)라는 사회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특유의 톨레랑스 철학은 좌파 정권 시절에는 좀더 강조되었다가 우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경시되는 등 부침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금의 우파 정권은 경시를 넘어 톨레랑스를 아예 용납하지 않을 태세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남의 잘못에 관대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보는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소매치기 등 범죄가 일상화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유럽 1위가 됐다. 포도주업계를 고려해 가벼운 음주 운전은 봐주자는 소리가 쑥 들어갈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톨레랑스 제로의 사회현상은 효과가 있다. 2002년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취임해 톨레랑스 제로를 추구하는 정책을 펴면서 범죄율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현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중앙일보, 2003.11.4:15). 좌절을 겪은 이민자 2세들이 문화적으로는 어느 정도 프랑스 사회에 동화해왔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자 본래의 문화 즉 부모 세대의 문화로 공격적 회귀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랍인이며 이슬람교도임을 천명함으로써 본인의 실패를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한편 프랑스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포기하기도 했던 라마단을 다시 지키고, 열정을 가지고 코란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반복되는 사회적 실패와 부끄러움을 보상받고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고 공동체 집단의 혼융함과 나아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민자 2세대들 사이에 확산되는 이슬람 중흥이 프랑스 사회에 경계심과 거부감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데 있다. 이는 프랑스 공화국의 비종교성 원칙에 대한 도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2005:188). 프랑스는 정교분리사상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쿠키뉴스, 2005.11.8).

### (3) 의사소통의 단절

정치권은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지난 30여 년간 방리유(대도시 근교 지역) 지역의 주택 및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행된 정책은 없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주류와 이민자계층간의 의사소통단절을 가져오게 되었다. 의사소통의 단절로서 대도시와 방리유는 주류와 이민자 계층으로의 분리는 차츰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확실한 차별이 자리를 잡았다. 특히 이런 차별은 이민자의 젊은층들을 자극했다. 통합 정책의 실패로 인한 단절과 불만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쌓여 오다 폭동으로 표출되었다(동아일보, 2005.11.25).

의사소통이 원만하면 '불만의 씨앗'을 감소시킬 수 있고 폭력행위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단절은 불만을 축적 시키고 상대에 대한 반감(反感)을 키워나

---

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없는 가벼운 잘못은 적당히 눈감아 준다라는 의미다(서울대불어문화연구소, 2005).

② 톨레랑스는 라틴어 'tolerare'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참다', '견디다'를 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톨레랑스는 관용이라는 다소 권위주의적인 뉘앙스가 깃든 말보다는 '견뎌'거나 '용인'으로 옮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나에게 불편한 것, 이해해주고 싶지 않은 것, 마땅찮은 것을 참고 견디고 받아주는 것이다(하승우, 2003).

가는 요인이 되었다.

#### (4) 복지제도의 부작용

복지 제도의 부작용으로는 일자리 요구와 복지무임승차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한 사회다.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로 해고해도 근로자가 소송을 내면 75%는 승소한다는 통계와 같이 법적용 또한 근로자에게 관대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제도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져왔다. 또한 프랑스는 실업·주택·가족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 장치도 잘 마련돼 있다. 이번엔 소요 사태를 빚은 저소득 이민자 가정도 이런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민자나 이민 2세대는 최소한의 빵을 보장하는 복지로는 불충분하다며 일자리와 미래를 요구한다(조선일보, 2005.11.25). 1998~2001년에 2.1~4.2% 성장한 것을 제외하고 90년대 이후 내리 1%대 저(低)성장을 하고 있다. 전체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하는 복지혜택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관련 금액을 부담하는 집단은 지출이 증가하여 불만이 축적되고 복지혜택을 받는 집단 역시 복지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더 많은 복지혜택을 요구함으로써 양 집단간 갈등이 높아진다. 복지의 무임승차와 소외계층의 일자리 갈망이 공존하는 프랑스식 모델이 사회 갈등을 고조시켰고, 누적된 갈등이 폭동의 원인이 되었다(조선일보, 2005.11.25).

높은 복지만 믿고 일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무임승차가 늘어나게 되면(조선일보, 2005.11.25), 열심히 일을 하며 높은 세금을 내는 국민과 갈등을 가지게 된다. 남의 잘못에 관대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보는 피해가 커질 경우 이 두 집단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5) 이민자집단 배척 감정의 누적

문화와 습관이나 민족이 다른 외국인의 증가는 일자리와 치안 문제를 낳으며 기존 국민들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떨어뜨렸다. 그 결과 국민들은 자신의 존재가 침식당한다는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이민자 배척을 외치는 우익이 세력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세계정세를 읽는 모임, 2005:117). 프랑스는 높은 실업율과 이민자의 범죄가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극우정당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2005:183-185). 이번 무슬림에 의한 프랑스 폭동사태 후 프랑스의 우경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내일신문, 2005.12.19).<sup>20)</sup>

20) 프랑스 국가인권차문위위원회(CNCDH)가 여론조사기관인 CSA에 의뢰, 지난 11월 17일~22일 프랑스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6%가 "외국인이 프랑스 안에 지나치게 많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조사에 비해 18% 증가한 것으로 "이민자가 프랑스 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국은 프랑스"라고 답한 사람은 오히려 11% 감소했다. 조사결과 좌파 지지자(23%)에 비해 우파 지지자(50%)가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거리낌 없이 밝혔다. 특히 극우정당 국민전선(FN)과 공화국운동당(MNR) 지지자 91%가 인종차별주의자로 자처했다. 응답자 중 63%는 "어떤 인종차별주의 태도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답해 우경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내일신문, 2005.12.19).

이민자 집단이 기존 국민과 융화되어지지 못하고 이질 문화를 형성하여 문화적 단층을 이룰 경우 기존 국민은 자신의 존재가 침식되고, 이민자 집단에 관대할 수 없을 만큼 내국인이 보는 피해가 커졌다고 느끼게 되어 상대집단에 대한 증오감과 불만이 누적되고(중앙일보, 2003.11.4), 비폭력적 방법으로 분출할 대안이 없을 경우 폭력(terror)<sup>21)</sup>이나 극우 정당의 지지로 전이(轉移)될 것이다.

### (6) 이민2세의 범죄증가

이민자 및 이민2세가 거주하는 지역은 경제 침체로 인하여 빈민가(貧民街)가 형성되고, 프랑스 경찰노조는 빈민가의 높은 범죄와 위협을 이유로 공권력의 접근을 기피하였다. 공권력이 제한된 지역은 치안부재의 원인이 되었다. 이들에 의한 범죄는 기존의 사회·정부에게 이민자 및 외국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과 반감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민자 및 2세의 범죄는 주류사회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비주류세력인 이민자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되었다. 이러한 적대함과 갈등은 비폭력적 해결책의 한계를 초과 하였을때 상대집단에 대한 테러(terror)성 행동으로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

## 3. 프랑스폭동사태의 발생 단계

프랑스 폭동사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폭동의 전개는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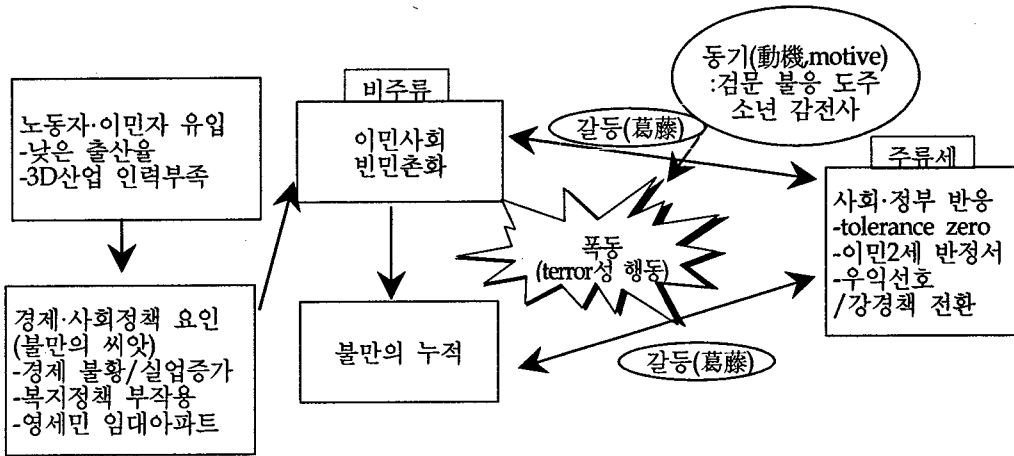
프랑스의 낮은 출산율과 노동력부족에 따른 노동자·이민자의 유입이 시작 되었고, 프랑스 국내 불경기는 이민자에 대한 경제·사회정책적으로 불만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민사회는 빈민촌화되고 비주류 집단세력을 형성하며 상대적 불만이 누적되었다. 이러한 불만은 주류세력인 프랑스 국민과 갈등을 보였고 빈민가에 거주하는 이민2세가 프랑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다 감

21) ① 테러란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이란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적 재해와 건물의 붕괴, 화재, 대형 교통사고 등 인간의 실수로 인한 인적 재해를 포함하여 폭력행위, 잔혹한 살인, 집단적 폭행 등의 범죄적 행위 등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하여 불안한 심리상태를 조성하는 모든 현상을 총칭한다. 흔히 테러리즘과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혼돈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최기남, 2005:412).

② 테러리즘(terrorism)이란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수반하여 초정상적(超正常的)인 수단(手段, extranmal means)에 의해서 정치적 행동을 가하기 위한 상징적(象徵的) 행위로서 공포(恐怖)와 두려움(terror)을 이용하는 것이다(주수기, 1987:380). 또는 협박, 위압, 강요,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적, 경제적 목표달성을 기도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범죄행위 또는 그 위협이다(William Cunningam and Philip Gross, 1978:3; 최기남, 2005:412)등으로 학자, 기관별 정의하고 있으나 테러리즘의 동기, 대상, 범위, 주체, 이념 등의 포함 여부 그리고 학자들과 테러리즘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테러리즘이 달리 정의됨으로써 테러리즘의 정의에 대한 연구와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최진태, 1997:17; 최기남, 2005:411). 따라서 본 논문에서 비주류집단의 불만이 주류집단에 대한 방화라는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테러리즘보다는 테러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할 수 있다.

전사당하는 계기가 동기가 되어 비주류 이민2세들이 주류세력에 대한 방화와 폭력으로서 불만을 표출한 사태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한 프랑스 폭동 발생 진행도는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프랑스 폭동의 발생 진행도



## V. 한국내 외국인 이주 및 체류자집단의 폭동잠재성과 프랑스폭동의 주요 요인별 비교분석

### 1. 주요 요인별 비교분석

#### 1) 경제적요인

한국내 거주 외국인의 집단적 폭동발생 가능성의 주요 경제적요인으로 경기불황을 들 수 있다. 프랑스 폭동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는 출산율 감소현상은 한국내에서도 현재 진행중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폭동이전 장기 불황에 따른 실업률 증가 및 청년 실업증가는 한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어 지고 있다. 프랑스 폭동사태에서 살펴본 프랑스 경기불황은 프랑스의 노동력 시장의 경직성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한국내에도 프랑스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유사한 노동시장의 불안정<sup>22)</sup>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적 노동력의 필요성에 의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기불황으로서 프랑스내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잔류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문제점과 프랑스 주류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현

22) 한국내 학력과잉 현상, 청장년 실업률 증가, 3D 영세업종의 인력난

상은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유입현상과 유사점이 있다고 본다.

<표 5-1> 한국 폭동잠재성과 프랑스폭동의 주요 경제적 요인 비교

한국내 폭동잠재성 요인	프랑스폭동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불황</li> <li>·노동시장의 불안전성</li> <li>·내국인 실업률 증가</li> <li>·청장년 실업난 증가</li> <li>·낮은 출산율</li> <li>·중소제조업 인력난 심각</li> <li>·청년층 학력 과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 경기 불황</li> <li>·경직된 노동시장의 근로형태</li> <li>·높은 실업률</li> <li>·청년 실업 증가</li> <li>·프랑스 국민의 낮은 출산율</li> <li>·대량 실업의 장기화</li> <li>·채용에 있어서의 내국인과의 차별</li> </ul>

## 2) 사회정책적요인 비교

한국내 거주 외국인의 집단적 폭동발생 가능성의 사회정책적요인의 현상으로 한국영세업체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관리의 문제점으로 불법체류자가 증가 하고 있다. 국제결혼증가와 농·어촌의 국제결혼은 코시안(kosian)을 증가시키고 있다. 농·어촌의 외국인 배우자 증가는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코시안의 집중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이 밀집한 공단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을 이루는 집단촌을 발생시켰다. 외국인 체류자에 의한 범죄는 한국인들의 반외국인 정서가 누적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로 인하여 임금체불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가하는 일부 사업장으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반한감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반외국인정서와 외국인 체류자의 반한정서는 대립되고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이미 폭동이 발생한 프랑스의 사태를 살펴보면 폭동발생의 잠재성으로의 사회정책적요인은 경기 불황으로 양극화되는 이민자집단과 프랑스국민의 상호대립현상이었다. 대립현상은 이민2세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왔고 정체성 혼란을 가진 이민2세집단은 소외와 좌절을 느끼게 되어 그들의 문화인 이슬람문화로 회귀함으로써 프랑스의 정교분리사상과 충돌하게 되었다. 빈민가를 형성한 프랑스 이민자집단의 범죄증가는 프랑스 내국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민자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적대적 불만은 이민자에게 강경한 정책을 유지하는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었다. 프랑스 내국민의 극우정당 지지에서 표출된 그들의 의지와 경제·문화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적 요소와 충돌하게 되어 지면서 대립적 갈등관계에 놓여지게 되었는데 서로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갈등의 해소 또는 완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누적되어 지면서 반감정적 대립은 장기화 되었고 관용 정책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다. 또한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복지무임 승차와 소외계층과 일반 계층간의 대립은 점차 상대집단에 대한 감정적 대립을 촉진시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양 집단의 감정적 대립의

갈등을 완화시킬 비폭력적 의사소통 조직체계가 기능적 한계에 도달하였고, 결국 갈등은 방화와 같은 폭력적 방법으로 표출되어 졌다.

<표 5-2> 한국 폭동잠재성과 프랑스폭동의 주요 사회정책적 요인 비교

한국내 폭동잠재성 요인	프랑스폭동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주류세력·확대화 양상</li> <li>·이민자 집단촌(集團村) 형성 ⇒ 비주류 이민자집단촌 세력과 주류 한국사회 대립 형성</li> <li>·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li> <li>·불법체류자 증가</li> <li>·국제결혼 증가</li> <li>·코시안 증가 추세</li> <li>·농촌 지역 외국인 배우자증가 ⇒ 경제력이 약한 지역 밀집현상</li> <li>• 주류세력과 비주류세력의 갈등 양상</li> <li>·외국인 및 불법체류자의 범죄 증가</li> <li>·외국인 범죄에 의한 반외국인 감정 확산</li> <li>·외국인 노동자와 기업간 갈등 ⇒ 임금체불, 폭행, 인권침해</li> <li>·불법체류자집단 반한감정(反韓感情) 형성 ⇒ 단속에 대한 항의 → 정치성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주류세력·확대화<sup>23)</sup></li> <li>·대도시와 방리유로 지역적 대립 ⇒ 이민사회 집단촌(集團村) 및 빈민가(貧民街)형성 : 예) 방리유</li> <li>• 주류세력과 비주류세력의 갈등 양상</li> <li>·이민2세의 정체성 혼란</li> <li>·이민2세의 소외와 좌절</li> <li>·이민 2세 범죄 증가</li> <li>·톨레랑스 제도</li> <li>·이슬람 종교와 laïcité 충돌</li> <li>·과도한 복지 정책 ⇒ 복지 무임승차, 소외계층이 일자리 갈망</li> <li>·관용 정책의 한계</li> <li>·타 문화에 대한 반감</li> <li>·불만의 표출 방법 제한</li> <li>·내국인과 이민자 집단간 문화적 단층 형성</li> <li>·극우 정당이지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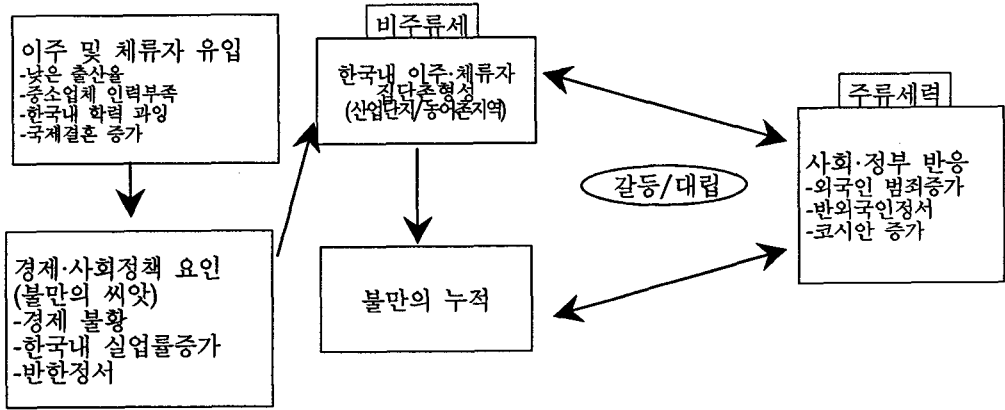
## 2. 한국내 외국인 이주자 및 체류자집단의 폭동잠재성의 예측

폭동이 발생한 프랑스 사태와 한국의 폭동발생 가능성의 주요 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내 폭동가능성은 내재되어 있으며 폭동발달 단계에 있어 비주류세력인 외국인 이주 및 체류자집단과 주류세력인 한국민족과 갈등과 대립단계에 있으며 불만의 누적단계에 있다고 예측할 수가 있다. 이런 잠재성의 증폭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어떤 사건이 상호간의 종교적·인종적 이념의 대립양상으로 발전하거나 비주류세력에 대한 감정축발적인 차별적 대우가 사회적 사건으로 표면화 될 경우 우발적인 폭력사태로 진전될 수 있으며 특히 비주류세력의 집단거주지역에서 촉발될 경우에는 가속화 되어 집단적 폭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23) 프랑스의 '이미 비주류세력의 고착화'와 되었으며 한국내에는 현재 외국인 이주 및 체류자가 증가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1> 한국내 잠재적 폭동잠재성에 대한 예측도



## VI. 결 론

프랑스 폭동의 원인으로 살펴본 한국의 경제 사회정책적요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프랑스는 낮은 출산율과 3D업종의 노동력 부족으로 이민을 대거 수용하였고, 이들은 정착하였다. 한국 역시 낮은 출산율과 3D산업의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경기 불황으로 취업률이 저조하였고 한국 역시 현재 청년실업률 증가와 취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셋째 이민2세의 증가이다. 프랑스 이민2세는 주류사회와 여러 갈등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 이민2세와 같은 한국의 코시안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 체류자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의 범죄 증가는 내국인과의 갈등을 유발 시키고, 그 갈등은 남의 잘못에 관대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보는 피해가 커질 때(중앙일보, 2003.3) 물리적 충돌로 발생 할 수 있다.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부당대우 등으로 인한 반한감정과, 한국내 외국인범죄증가와 2001년 9월 11일 미국 대폭발테러사건이후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인한 테러위험으로 반외국인 감정 상존하여 이 두 집단간에는 상호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한국내에는 프랑스 폭동과 같은 폭동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한국내 이주 및 체류자집단들의 인종문제가 집단폭동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 및 체류자집단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미흡할 경우 다문화 가정2세 및 이주2세들이 성장하여 부딪치게 되는 불만들이 누적되어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관용과 평등의 나라 프랑스의 폭동사태에서 관용과 평등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한국내 안정된 경제발전을 통하여 한국 고용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출입국자 관련법

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확고히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행위를 근절하여 임금지불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이주 및 체류자집단과의 문화적 단층을 낮추기 위하여 다양한 교류활동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내 폭동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이와 같은 한계는 후속연구로 극복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 국회행정자치위원회(2003). "200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노동법(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6호).
- 대구 외국인 노동상담소(정기 봄 소식지)
- 동아 새국어사전(2005),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 (주)두산동아.
- 동아 프라임 영어사전(2005), 두산 세계 대 백과사전(2005), (주)두산동아.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2004).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주)도서출판 강.
- 세계정세를 읽는 모임(2005), 박소영 역. 「지도로 보는 세계분쟁」, 이다미디어.
- 이선주(2005), 「유럽의 나르시시트」, 민연.
- Charles Tilly(1995), 「동원에서 혁명으로」, 學問과 思想社.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55(치료감호법))
- 하승우(2003), 「희망의 사회 윤리 톨레랑스」, 책세상.
- 환경노동위원회(2003). "200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Samuel P. Huntington(2004), 「문명의 충돌」, 김영사.
- 금장수(1849), "Markomania와 5월폭동", 관동대학교 關大論文集, Vol.25 No.1.
- 김용찬(2001). "프랑스의 외국인정책", 민족연구.
- 김형준(1999). "폭동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자바문화의 지속과 변화:이슬람과 전통 사이에서", 국제·지역연구 8권1호.
- 법철학연구회(2004), "시민불복종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法政論叢 Vol.39.
- 스카치폴.데다(1987), "혁명에 대한 설명들", 한국인물사회과학원, Vol.11 No.4.
- 장태한(2000),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동포 사회의 미래",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Vol.12.
- 주수기(1987), "테러와 테러리즘의 體系的 觀念化", 논문집, Vol.21.
- 최기남(2005). "중동 terrorism의 대두와 전망", 「경호경비연구」.제8호 409-438.
- Gerard Noiriel(2002),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은 유효한가", 민족연구 Vol-No9.
- 경향신문 (2005), "佛소요사태, 가난한 모슬렘 주류사회에 '반기'", 11.7.
- 국민일보(2004), "정권타도 외치는 불법체류자들", 10.4.
- 국민일보(2005). "[국민논단-변도윤] 청년실업의 재생산 구조", 11.21.
- 내일신문(2005), "프랑스 우경화 뚜렷", 12.19.
- 내일신문(2005), "한국은 다민족 국가 ... 단일민족은 환상일 뿐", 11.17.
- 노컷뉴스(2005), "조직화·전문화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심각'", 11.10.

- 대전일보(2005). "中企 '일할사람 어디 없소'", 8.7.
- 東京新聞(2005), "仏暴動、10都市以上に擴大", 11. 16.
- 동아일보(2005), "'단절'이 佛태웠다.", 11. 25.
- 매일경제(2005), "이민자 천국 프랑스서 폭동 왜 발생했나", 11.8.
- 매일경제(2005), "프랑스 폭동 원인은 근로모델", 11.10.
- 머니투데이(2005). "출산을 떨어지는데 출산연령 여성수도 감소", 11.29.
- 머니투데이(2005). "프랑스 소요는 유럽식 경제모델의 종말", 11.9.
- 서울경제(2005), "中企 일할 사람없어 '발동동'", 8.1.
- 서울신문(2004), "테러국 출신 국내 1만명 체류", 10.4.
- 세계일보(2005), "[일그러진 '코리아 드림']작업중 폭언·구타 일쑤... 항의도 못해". 12.5.
- 연합뉴스(2005). "프랑스에서만 이민자 폭동이 일어난 까닭", 11.11.
- 오마이뉴스(2005), "'우린 당신들의 개가 아니다' '불타는 프랑스' 이유 있었다.", 11.8.
- 일다(2004), "언론, 불법체류자들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 10.11.
- 조선일보(2004),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反韓활동", 10.3.
- 조선일보(2004), "알카에다 활동과 연계가능성", 10.3.
- 조선일보(2005), "['불탄 프랑스' 경제 대해부] 복지 외치다 '실업病 30년'", 11.24.
- 조선일보(2005), "베짱이 많아 개미 허리 휜다.", 11. 25.
- 조선일보(2005), "한국內 이민자는?". 11.9.
- 조선일보(2005), "[파리 이민자 7일째 소요 르포] 빈민촌 청년들 닥치는대로 부쉘", 11.4.
- 중앙일보(2005), "[그후한달] 프랑스 소요사태", 11.26.
- 중앙일보(2005), "'중전60주년' 독일 신나치주의자들 목소리 높여", 5.13.
- 쿠키뉴스(2005), "틀레랑스(관용)와 솔리다리테(연대)가 사라진 프랑스", 11.8.
- 파이낸셜뉴스(2005), "여성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지정운영 추진", 11.23.
- 프레시안(2005), "프랑스 소요사태, 우리에게도 '강건너 불' 아니다", 11.8.
- 한겨레(2005), "외국인 범죄 작년 1만건 넘어", 5.2.
- 헤럴드경제(2005). "기업 인력난 갈수록 극심", 11.23.
- CBS (2004),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알자와히리와 10월 위기설", 10.5.
- KBS TV(2002), "취재파일 4321-노총각 올리는 국제결혼", 5.6.
- MBC TV(2003), "뉴스데스크" 9.3.
- MBC TV(2003), "PD수첩 '국제결혼의 뒷에 걸린 여성들'", 4.15.
- SBS TV(2001), "그것이 알고 싶다 '돌아오지 않는 신부들(국제결혼의 그늘)'" , 2.8.
- YTN TV(2005), "2004년 출산을 1.16명...사상 최저", 8.24.
- YTN TV(2005), "불법체류, 합법 고용이나 경비 축소냐", 10.20.

<http://www.migrant.or.kr/>(안산외국인 노동자 센터)

<http://www.moj.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출입국 관리국)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pnan.org/technote/read.cgi?board=mw&y\\_number=0](http://www.pnan.org/technote/read.cgi?board=mw&y_number=0)(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현안  
자료)

<http://www.washingtonpost.com>

## ABSTRACT

### A Skechy Study on a Riot Possibility of a Race Problem that Immigrants and Sojourners in Korea

Choi, Kee Nam

Lee, Sun Je

Korea is not permitting the foreigner emigration officially. But to domestic the foreigner dwells in the form which is various and it is living. These people are slept, the industrial workers and married a person of different nationality and kosians

In 2005 October 27th a race riot raised by the immigration and stay sleeping group in France. It observes the width eastern possibility due to foreigner immigration and stay which dwell even inside instruction making Korea which will reach sleeping group the reporter it does.

**[Key words : france riot, terrorism, riot, a group violence, incendiarism]**